

2016년 2월 16일 공보 2016-2-14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6년 2월 16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박종우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jongwoo@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과 유로지역은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국채금리 ¹⁾				
	(전기비연율, %)					(기말기준, %)				
	14.4/4	15.1/4	2/4	3/4	4/4	15.11월	12월	16.1월	2.15일	
미국	2.1	0.6	3.9	2.0	0.7	미국	2.21	2.27	1.92	1.75 ²⁾
유로지역	1.5	2.2	1.6	1.2	1.1	독일	0.47	0.63	0.33	0.24
일본	2.5	4.2	-1.4	1.3	-1.4	영국	1.83	1.96	1.56	1.43
중국 ¹⁾	7.2	7.0	7.0	6.9	6.8	브라질	15.87	16.51	16.19	16.23
						인도	7.79	7.76	7.78	7.75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 상무부, Eurostat, 일 내각부, CEIC

주: 1) 10년물
자료: Bloomberg 2) 2.12일 기준

[실물경제]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15.1/4	2/4	3/4	4/4	15.10월	11월	12월	16.1월
GDP 성장률	3.3	2.6	2.5	2.2	2.7	3.0	-	-	-	-
GDP 민간소비	1.8	2.1	1.5	1.7	2.1	3.2	-	-	-	-
소매판매 (S.A, 전기비)	1.7	3.4	1.6	2.9	3.1	5.7	8.3	5.6	3.5	..
GDP 설비투자	5.8	5.2	5.8	5.0	6.6	3.5	-	-	-	-
설비투자지수 (S.A, 전기비)	5.2	6.2	8.4	5.2	10.0	1.7	12.5	-4.9	-1.0	..
GDP 건설투자 건설기성액 (S.A, 전기비)	1.0	4.0	0.6	1.6	5.7	7.3	-	-	-	-
수출(통관) (일평균, 억달러)	2.3	-8.0	-3.0	-7.3	-9.5	-12.0	-16.0	-5.0	-14.3	-18.8
제조업 생산 (S.A, 전기비)	0.1	-0.6	-1.0	-1.4	-0.4	0.1	2.3	-0.1	-1.8	..
서비스업 생산	2.2	2.9	2.8	2.5	2.9	3.1	3.2	3.2	3.0	..
취업자수 증감 ¹⁾ (공공부문 ²⁾ 제외)	533.0	336.9	353.9	308.1	309.8	375.9	347.8	284.9	495.0	..
고용률 (전년동기대비 %p)	60.2	60.3	59.0	60.7	60.9	60.5	60.9	60.8	59.9	..
실업률 (전년동기대비 %p)	3.5	3.6	4.1	3.8	3.4	3.1	3.1	3.1	3.2	..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연간 및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물가]

-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의 영향 등으로 전월의 1.3%에서 0.8%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균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4%에서 1.7%로 하락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

	15.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대비, %) 16.1월
소비자물가	0.6	0.9	1.0	1.3	0.8
(전월비)	(-0.2)	(0.0)	(-0.1)	(0.3)	(0.0)
▪ 농축수산물	1.7	3.0	1.7	2.9	2.4
(농산물)	(0.4)	(2.8)	(1.6)	(4.6)	(2.4)
▪ 공업제품	-0.4	-0.3	0.0	0.4	-0.8
(석유류)	(-18.8)	(-18.6)	(-17.5)	(-15.6)	(-10.3)
(석유류제외)	(3.0)	(3.0)	(3.1)	(3.2)	(0.6)
▪ 서비스	2.0	2.1	2.2	2.3	2.4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2.1	2.3	2.4	2.4	1.7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주택가격상승률

	15.9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 16.1월
주택 매매가격	0.5	0.3	0.4	0.2	0.1
▪ 수도권 ¹⁾	0.5	0.4	0.4	0.2	0.1
(서울)	(0.5)	(0.4)	(0.5)	(0.2)	(0.1)
▪ 광역시 ²⁾	0.6	0.4	0.5	0.2	0.1
▪ 지방 ³⁾	0.2	0.2	0.3	0.1	0.1
주택 전세가격	0.6	0.4	0.5	0.3	0.2
▪ 수도권 ¹⁾	0.7	0.5	0.6	0.3	0.3
(서울)	(0.8)	(0.6)	(0.7)	(0.4)	(0.3)
▪ 광역시 ²⁾	0.4	0.4	0.4	0.2	0.1
▪ 지방 ³⁾	0.2	0.2	0.3	0.1	0.1

주: 1) 서울, 인천, 경기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3)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자료: 국민은행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글로벌 증시불안, 외국인 순매도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다.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로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하락, 국내 경기 및 물가 지표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리, 주가, 환율¹⁾ 및 가계대출

	15.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15일
국고채(3년)금리(%)	1.57	1.66	1.79	1.66	1.56	1.48
국고채(10년)금리(%)	2.06	2.11	2.25	2.08	1.98	1.83
KOSPI	1,963	2,029	1,992	1,961	1,912	1,862
원/달러 환율	1,185	1,140	1,158	1,173	1,199	1,208
원/100엔 환율	989	941	943	974	995	1,061
은행 가계대출 ²⁾ 증감(조원)	6.2	9.0	7.5	6.9	2.2	..

주: 1) 기말기준
2) 모기지론 양도 포함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